**문병로 교수의  
메트릭 스튜디오**

✡ PER  
  
시가총액을 1년 순이익으로 나눈 것, 회사가 몇 년을 벌면 시가총액만큼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지  
PER = 시가총액 / 1년 순이익  
ex) PER = 5 🡪 5년만 돈 벌면 시가총액만큼의 재산이 더 늘어난다.  
 즉, 지난 1년 동안 시가총액의 20% 만큼 순익을 냈다는 것이다.  
낮은 PER 🡪 현재 주가가 회사의 실력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다.  
PER이 높은 주식보다는 낮은 주식이 수익률이 높았다.  
PER 3이상인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(기대수익)은 PER의 역수와 대략 비례한다.  
2 < PER < 10이 안전

✡PBR  
  
회사의 장부가치에 대한 시가총액의 상대적 비율 (장부가치 = 자산- 부채 = 자본총계)  
PBR = 시가총액 / 장부가치  
낮은 PBR 🡪 현재주가가 회사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있다. 🡪 가치주  
높은 PBR 🡪 시장에서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. 🡪 성장주  
  
 기준  
 PBR = 1

PBR > 1  
시가총액이 장부가치 이상이니  
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주식

PBR < 1  
시가총액이 장부가치에 미치지  
못하니 인기 없는 주식

결론: 비인기주가 인기주보다 상승확률이 높다.

✡손절

결론 : 손절을 하는 것이 손절을 하지 않는 것보다 현명하다.  
그렇지만 -25%이하 -7.5%이상일 때, 손절하는 것은 손절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.

연평균 수익률  
50.14%  
56.67%  
59.84%  
61.93%  
62.96%  
63.82%  
64.20%  
63.08%  
63.19%  
63.31%  
62.97%  
62.37%

58.99%

손절 기준  
-2.5%  
-5%  
-7%  
-10%  
-12.5%  
-15%  
-17.5%  
-20%  
-22.5%  
-25%  
-27.5%  
-30%

무손절

✡대형주와 소형주  
매년 시가 총액의 크기에 따라 10등분 한 다음 각 그룹의 1년 평균 복리 수익률.  
단, 자본 총계 하위 5% 제외

✡영업이익과 순이익  
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가 지나치게 크면 반드시 그 이유를 살펴야한다.  
Because 순이익 = 영업이익 + 영업이외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 (부동산, 증권, 환차손익…)

✡산술평균과 기하평균  
여러 번 투자한 결과의 평균을 낸다고 하자.  
산술평균: 이들을 모두 동시에 투자했을 때의 평균수익  
C:\Users\김 택범\AppData\Local\Microsoft\Windows\INetCache\Content.Word\캡처.png  
  
기하평균: 이들을 순차적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당 복리수익  
C:\Users\김 택범\AppData\Local\Microsoft\Windows\INetCache\Content.Word\1.png  
ex) 2회의 투자를 했다. 한번은 900% 이익, 한번은 90% 손실을 보았다고 하자.  
산술평균: 900-90/2 = 405%  
기하평균: = 0%

✡현금흐름  
PCR: 시가총액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(영업현금흐름)으로 나눈 것.  
PCR = 시가총액 / 1년 영업 현금흐름  
PCR 8미만의 주식들이 PCR 8이상인 주식들보다 수익이 높다.

✡영업이익  
POR: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.  
POR = 시가총액 / 1년 영업이익  
POR 8 미만의 주식들이 POR 8 이상인 주식들보다 수익이 높다.

✡EBITDA  
이자, 세금,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 
🡪 영업이익 + 감가상각액  
EV: ‘기업의 총가치’ 또는 ‘기업 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하는 금액’ 🡪 기업실가격  
= 시가총액 + 부채총계 – 현금 및 현금 등가물  
EER ( EV – to – EBITDA Ratio)  
EER = EV / 1년 EBITDA  
저EER주가 고EER주보다 수익률이 높다.

✡매출액  
PSR: 시가총액을 1년 매출총액으로 나눈 것.  
PSR = 시가총액 / 1년 매출총액  
저PSR주가 고PSR주보다 수익률이 높다.

✡단순장부가치  
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면 대형주의 수익률이 소형주를 앞선다.

✡자기자본 이익률  
ROE: 자본총계에 대한 이익 창출 능력  
ROE = 1년 순이익 / 자본총계  
  
  
고ROE주가 저ROE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듯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판단이 不可하고 다른 지표들도 살펴봐야한다.

☯전해 내려오는 패턴들, 과연 유용한가?✡이평선 상향 돌파와 하향 돌파  
🡪 일반적인 20일 이평선 상향 돌파는 의미 없다.  
🡪 20일 이평선 하향 돌파는 경미한 하락신호  
🡪 20일 이평선 상향 상태에서 발생한 상향 돌파는 상승신호  
🡪 지수 이평선 별 것 없다.  
  
✡이평선은 추세를 만드는가  
🡪 개별 종목 이평선의 상향 전환은 의미 없다.  
🡪 종합지수 이평선의 상향 전환은 추세를 만든다.  
  
✡골든크로스 / 데드크로스  
🡪 골든크로스: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.  
 KOSPI 20~60 골든크로스 (KOSPI 60 이평 상향상태에서)는 시장평균보다 앞선다.  
🡪 데드크로스: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.  
 하락 신호라고 말하기 힘들다.  
  
✡정배열  
여러 개의 이평선이 기간이 짧은 순으로 위에서부터 배치된 모양  
Because 여러 개의 골든크로스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  
 5개 정배열(5-10-20-60-120) 🡪 3주까지 힘이 가장 강하고 6주 이후에는 시장평균으로 회귀  
🡪 정배열은 시장 평균대비 우위가 있다.  
🡪 종합지수 상향상태에서 발생한 정배열은 더욱 매력적  
 KOSPI 20이평 상향일 때! (KOSPI 60도 괜찮)  
🡪 종합지수 정배열이 발생한 지 얼마 안되어 발생한 정배열은 금상첨화  
 정배열 + KOSPI 정배열 형성 20일 이내  
 3개월까지 힘이 점점 세지는 경향을 보인다.  
🡪 개별종목 정배열보다 지수의 정배열이 더 강하다.  
 개별 종목 정배열은 3주 정도 지속, 종합 지수 정배열은 적어도 6주 지속  
  
✡볼린저밴드  
주가가 95%의 확률로 속하게 되는 이론적 구간을 매일 매일 연결한 것.  
🡪 볼린저 밴드의 상단은 저항선, 하단은 지지선  
🡪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해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.  
🡪 볼린저 밴드 산정 기간이 길어지면 돌파의 의미는 강해진다.  
  
🡪 밴드 폭이 좁을수록 좋다.  
 🡪 20일 볼린저 밴드의 경우 밴드의 폭이 중심값 (20일 이동 평균값)의 15% 이내이면  
 상당한 매력이 있다.  
 🡪 폭 4% 이하 상단 돌파 🡪 6개월까지  
 🡪 밴드의 폭이 대략 5%는 넘지 않는 것이 좋다.  
🡪 밴드의 폭이 좁다는 것 자체로도 매력이 있다.  
🡪 최고가 근처에서 발생한 상단 돌파는 에너지가 더 강하다.  
 🡪 폭 8%이하의 볼린저 밴드에서 52주 고가 근처에서 발생하면 6개월후 상승확률 60% 🡪 ‘근처’란 고가에서 5%~10%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지점  
🡪 돌파보다 근접  
 🡪 20일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상단에서 3% 미만으로 근접해 있을   
 때는 오히려 상단돌파보다 예후가 좋다.  
 🡪 이 구간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좋아진다.  
 🡪 폭이 좁은 밴드에서는 근접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감소  
 So, 전체적으로는 상단근접이 돌파보다 훨씬 매력적,  
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 근접보다는 돌파가 더 매력적  
🡪 상단근접에 고정 근접이 더해지면 금상첨화  
 🡪 상단 3% 근접 + 52주 고정  
🡪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.  
 🡪 한국에서만 통하는 이야기

✡신고가  
주가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를 돌파하는 것.  
🡪 그림의 떡 혹은 썩은 고기

✡이격도  
주가가 이평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나타내는 지표

**주식투자는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 대응의 게임이다.**

한국 증시에서 수치상으로 양극단 십분위의 수익률 차가 가장 큰 지표는 PBR이다. 우리 증시에서 장부 가치의 중요성을 말한다. 다음으로 차가 큰 것은 PSR이다. 매출액이 미치는 영향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. 그 다음은 시총/EBITDA, POR, PCR 순이다.

**투자를 하다 보면 괴로운 손실의 기간도 ‘반드시’ 발생한다.**

체감도가 높은 등락이 있으면 그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. 주식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삐뚤삐뚤 가고 있는 것이라고.

**뉴스는 잡음이다. 투자 정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.**